



죽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nia.com



존엄사, 관심 없는 불교계

국내 처음으로 6월 23일 연명 치료 중단 방식의 존엄사가 공식 시행된 김 모(77)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떼 뒤에도 호흡을 유지하면서 존엄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의료계와 법조계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반해 불교계, 특히 불교계는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어 아쉬움을 사고 있다.

대한사협회장을 주축으로 한 의료계는 8월 말까지 초안을 마련해 종교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국회도 이에 맞춰 기존 2건의 존엄사 법안 외에 3건의 존엄사 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조계종은 종단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2004~2006년 불교생명윤리관에 관해 연구를 진행한 불교생명윤리연구위원회(위원장 미산) 연구결과가 존엄사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불교생명윤리연구위는 안락사의 경우 '자살을 도와주는 살인'으로 정의한 반면, 존엄사는 '행위 판단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치료불가능한 경우)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자연사로서의 존엄사는 안락사의 대안으로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뇌사나 의식 불명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식이 있을 때 환자의 의사표명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존엄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위원회는 생전에 유언장 등을 통해 의사표명하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연구상황보다 현재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는데 있다. 존엄사를 단순한 연명치료 중단으로 봐야 할지, 인간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 과정으로 봐야 할지, 자연사 기준과 더불어 연명치료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물사용, 호스피스, 종교의식 등에 대한 구체적 적용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불교는 다 종교와 다르게 대중 합의에 의한 원용 살림을 꾸리는 것이 미덕으로 자리했다. 사회 현안에 불교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칼에 정리하려는 성급함을 버리고 철저히 대중공의에 따라야 한다.

불교계 안에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 이를 토대로 존엄사에 관한 사회적 담론에 당당히 참여하는 불교계의 모습이 필요한 때다.

‘사찰 관광지화’ 위험수위 넘어

조계종 전국 20여 개 사찰 피해 사례 조사… ‘문화유산지역’ 지정돼야

7월 2일 양산 통도사에서 거행된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앞두고 일부 공원지역 사찰의 피해 사례가 공개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이 6월 19일부터 4일간 전국 20여 개 사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종교적 성지이자 국민들의 정신적 휴식처인 사찰의 피해는 심각했다.

합천 해인사는 ‘문화유산지역’이 아닌 국립공원 등산로 중심으로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서울 화계사는 사찰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안내판을 해당 지자체가 철거 요청하기까지 했다.

보은 법주사는 홍수 방지를 위해



통영 미래사 앞에 세워진 승전탑.

필요한 발목조차 불허돼 매년 계곡이 범람하는 피해를 겪고 있는 한편, 영천 은해사와 합천 해인사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해당 지자체가 손

을 놓아 수 천 년간 지켜져 온 숲이 파헤쳐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경산 선분사 등 케이블카 설치로 몸살을 겪는 곳도 많았다.

사찰의 관광지화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 서울 진관사는 진인으로 초입에 불법영업을 하는 식당들이 늘어서 있었고, 북한산 금선사는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로 수행환경 침해가 심각했다. 합천 해인사는 집단시설지구 내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조계종 기획실장 장석 스님은 “20여 개 사찰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 여타 사찰까지 조사하면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종교적 성지이자 국민들의 정신적 휴식처인 사찰이 하루 속히 공원지역에서 해제돼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포교원 직영 포교당 운영이 해답”

포교원 · 종평위 ‘종교편향과 도심포교’ 토론회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공성)과 종평위원회(위원장 서영)는 6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연구소에서 ‘종교편향과 도심포교’ 토론회를 열었다.

2층 국제회의장에서 ‘종교편향과 도심포교’ 토론회를 열고 불교계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1부 성서화운동과 도심전도 전략, 2부 불교계 도심포교 대응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정응기 종자연 사무처장과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 교수가 각각 발제를, 종평위원장 서영 스님, 이찬수 종교문화연구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제2발제에서 김응철 교수는 “1990년대 신도시 개발 지역에 대규모 도심 사찰이 부재했다. 불교세가 열세인 서울 등 대도시와 영남을 제외한 중소도시 지역에 대한 종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1종교의 지위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극복방안으로 “목동,

용산 등 신도심에 포교원이 직영하는 포교당을 신설하고, 갖바위나 봉정암 등 주요 기도사찰도 도심 기도원을 건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더불어 각 교구본사 주지 임기 내 직영 도심포교 사찰을 1개 이상 건립하는 종범을 제정한다면 10년 내 50여 개 이상의 도심포교사찰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도심사찰 확대외에 △도심사찰 운영모델 개발 △전문도심포교인력 양성 △특별법 제정 및 포교기금 조성 △다양한 포교프로그램 개발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정응기 종자연 사무처장은 “개신교 성서화운동은 정교분리, 종교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이를 모방한 공격적·배타적 포교는 종교간 경쟁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덕현 · 이상연 기자

조계종 승려의식성향 조사해

총회 교육분과위 · 교육원 7월 한달간 실시

조계종 중앙총회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정묵)와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7월 1~30일 ‘바람직한 승가상 정립을 위한 조계종 승려의식성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전국 조계종 승려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이용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현장방문 또는 우편발송을 통해 진행된다. 조사결과를 8월 10일 보고서 발간에 이어 10월 9일

학술세미나를 통해 실질적 대안 등이 모색될 예정이다.

현종 스님은 “정화 이후 시대가 급변하면서 승가가 이를 뒤따라지 못한 탓에 막연하게 승려생활을 하고 있다”며 “승려 의식과 지향점 등을 탐색해 많은 승려들이 지향하는 승려상을 정립하고자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東大 이사장 영배 스님 사퇴 의사 밝혀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이사장과 이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영배 스님은 6월 23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가진 교계 기자간담회에서 “동국대 이사들간에 합의 · 추대로 차기 이사장이 선출될 것”이라며 “이사장직과 이사직 모두 내놓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

해 두 명을 제외한 이사를 모두 만나 간곡히 당부했다. 총무원장 선거와 연관됐다는 소문이 많은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이사장 거취와 정치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영배 스님은 화답을 피했지만 차기 이사장은 법륜 스님(부산 내원장)이 합의 추대될 예정이다. 전 문은 **붓다뉴스**에

조동섭 기자



군중특별교구 · 군불총 호국영령영가천도법회 봉행

조계종 군중특별교구(교구장 일민)와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김대영)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21일 양산 전쟁기념관에서 ‘호국영령영가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교구장 일민 스님을 비롯해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군불총회장 김대영 합참의장, 임충빈 육군참모총장, 정인익 군불교후원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영가 이운을 시작으로 천도의식과 국군정병 무운장구 및 국운옹장 기원 기도회 순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선지식 도량 건립을 위한

보명사 땅한평사기 및 천일기도

귀의 삼보하옵고

천안(天安) 성거산(聖居山) 보명사, 옛 지명은 도솔(兜率).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바세계 출현하시기 전에 주석하셨고 미래에 오실 마륜 부처님도 보살의 몸으로 현재 설법하시고 계시는 곳, 현재는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땅이란 뜻으로 天安이라 합니다.

고려를 건국하신 태조 왕건 대왕께서 이 산의 신령스러움에 이끌려 산 정상에 이르러 선지식의 가르침과 가피를 입은 후 삼국을 통일하고 건국의 대업을 성취하게 되었다 해서 성거산이라 이름짓고 매년 성대히 재를 올렸고 역대 왕들도 봉행했으며 조선 왕조에까지 이어오던 신령스러운 성지입니다.

이 성거산 요지에 다른 인연으로 보명사가 창건되어 유지되었고 소납의 특별한 인연으로 53 선지식 법회를 통하여 선지식 도량, 정법 도량으로 거듭 나고자 노력 정진하고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확보되어있는 5만여평의 부지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항구적으로, 정법 선지식도량으로, 종단의 공적 재산으로, 삼보 정재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많은 중생들이 편안함과 만족을 성취하는 도량. 이 땅에 남북의 분단이 소멸되고 통일대국 성취를 기원하는 도량으로 더 나아가 선지식을 친견할수있고 선지식을 육성하고 우리 모두가 선지식이 되는 선지식 도량을 굳건히 건설하고자 발원합니다.

많은 사부 대중들의 원력과 신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 거룩한 선지식 도량 건립 땅 한평사기 불사와 천일기도에 동참하여 무량부덕, 무량공덕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성거산 보명사 선지식도량 주지 靑虛 성문

총납 천인시 성거을 송남 2리 117-1
TEL. 041-522-3362 FAX. 041-523-3361
www.bomyungsa.org

● 선지식도량 성거산 '보명사', 전경

불사에 마음내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일기도 및 땅한평사기 불사에 동참하신 모든 가정에 화목함이 샘솟고 일터와 인연들은 원만하게 성취되며 불보살의 가피력과 은혜가 충만하여 세세생생 좋은 곳에 태어나 좋은 스승 만나 밝고 환이로서 성불하길 바랍니다.

- 1구좌(10평) : 50만원 1평 : 5만원
- 총면적 : 5,000구좌(5만평)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7235-63 대한불교조계종 보명사 우체국 311993-01-002169 대한불교조계종 보명사

천일기도

기	도	양	력	음	력	요일
입재	신묘장구대다리	21	09년 2월 21일	09년 1월 18일		목
2차	아이타경	09년 5월 23일	09년 4월 29일			토
3차	금강경	09년 8월 31일	09년 7월 12일			수
4차	자비도량 참법	09년 12월 9일	09년 10월 21일			월
5차	발심수행장 3복	10년 3월 19일	10년 2월 4일			금
6차	관세음보살 보문품	10년 6월 27일	10년 5월 16일			일
7차	원각경 보안보살장	10년 10월 5일	10년 8월 28일			월
8차	보현행원품	11년 1월 13일	10년 12월 10일			화
9차	금강경	11년 4월 23일	11년 3월 21일			금
10차	108경회	11년 8월 1일	11년 7월 2일			월
회향		11년 11월 8일	11년 10월 13일			화

● 천일기도 : 200만원(분할납부 가능) ※각 백일기도는 20만원 불사에 동참하신 분은 사적비에 이름을 새겨드리며, 동참하신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 1항에 의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